

유홍준이 보고 느낀 실�크로드 대장정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중국편3

유홍준 지음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여행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시기다. 예년 같으면 여행 계획을 짜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해외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 집 밖을 나서기도 망설여진다. 코로나는 일상의 많은 부분, 특히 여행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꾸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여행을 경험하는 것은 어떨까. 여행과 동시에 문화체험에 대한 갈증을 대체할 수 있는 책이 발견됐다. 답사여행의 대명사 유홍준이 펴낸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중국편 3'이 그것. '실�크로드의 오아시스 도시: 불타는 사막에 피어난 꽃'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투르판, 쿠차, 호탄, 카슈가르와 같은 오아시스 대표 도시를 가로지른다.

저자 스스로도 '실�크로드 답사는 내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여행이었다'라고 말할 만큼 책은 특별한 여정을 담고 있다. 2018년 8월에 다녀왔던 답사 일정이 마침내 한 권의 책으로 탄생한 것이다.

실�크로드라는 개념은 독일의 지리학자 페르디난트 폰 리히트호펜이 처음 명명했다. 오늘날에는 '초원의 길', '오아시스의 길', '바다의 길' 등 세 갈래로 나눠 말해진다. 전통적 관점에서 실�크로드는 "중국 서안에서 타클라마칸사막을 건너 시리아에 이르는 총 6400킬로미터"를 말한다.

신강위구르자치구는 오아시스 도시들로 이루어진 중국에서 가장 큰 성(省)이다. 광활한 타림분지를 중심으로 타클라마칸사막, 고비사막, 천산산맥과 곤륜산맥 등

거대한 산맥, 대초원이 이어진다. 흔히 실�크로드라고 하면 이 구역을 말하는데 여기서 실�크로드 북로와 중로, 남로가 뻗어나가 동서문명과 연결된다.

답사는 실�크로드 중로 오아시스 도시를 거쳐 타클라마칸 사막을 종단한 뒤 남로에 이른다. 그리고 중로와 남로가 만나는 카슈가르에서 대장정을 마친다.

투르판은 실�크로드 북로와 중로가 갈리는 지점에 위치한다. 고대부터 대표적인 오아시스 도시로 꼽혔는데 이곳에는 대형 고대도시와 무덤을 비롯해 널따랗게 펼쳐진 포도밭, 인공수도 카레즈가 있다. 특히 투르판 불교 유적을 대표하는 베베클리크석굴은 '서유기'에 등장하는 화염산을 배경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석굴사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근동이 이슬람화하면서 사원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데다, 주요 벽화와 불상이 독일 제국주의 탐험가들에 의해 파괴돼버렸다.

고대 구자국의 도읍 쿠차는 불교 유적지가 많다. 키질 석굴, 콤투라석굴, 수바시 사원 터 등이 모여 있다. 신강 최대 석굴인 키질석굴은 화려한 불교미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최초로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한 쿠마라지바의 일생과 업적을 엿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쿠차는 고구려 후예 고선지 장군이 당나라 안서도호부 장수로 일한 곳이기도 하다.

옥과 불교의 도시 호탄은 서역불교가 성립한 곳으로 평가된다. 이곳 또한 이슬람의 박해와 제국주의자들의 약탈로 찾아가볼 만한 곳이 드물다. 그럼에도 예로부터 옥이 유명했는데, 호탄강 지류에서는 옥을 찾는 '노옥' 풍경이 펼쳐지기도 한다.

카슈가르는 다른 도시에 비해 이슬람 색채가 강하며 위구르인들의 문화가 깃든 유적을 만날 수 있다.

누란은 지금은 없는 지명이지만 한때 실�크로드에서 번성했던 유럽 계통 사람들의 고대 왕국이다. '누란을 지배하는 자가 서역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요충지다. 역사적으로 그로 인해 흉노 등 다른 세력들에 시달리



소그드인은 실�크로드에서 활약하며 중국 장안에 이르기까지 많은 거점도시를 만들었다. 낙타를 탄 소그드인의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한 조형물. <창비 제공>

다 5세기에 멸망한다.

<창비·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노동의미래=한국 노동경제 전문가 4명이 앞으로의 노동과 한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며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본질적으로 다룬다. 이밖에 인구 고령화, 플랫폼 노동, 일의 디지털화, 소득불평등과 소득주도 성장, 노사관계, 노동 유연화 등도 살펴 본다. <현암사·1만7000원>



▲나는 말하듯이 쓴다=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을 써온 강원국의 신작이다. 대통령이 아니라도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말하기, 글쓰기 방법을 알려준다. 글을 잘 쓰고 싶으면 말을 잘해야 하고, 말을 잘하고 싶으면 글을 잘 써야 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법을 설명한다. <위즈덤하우스·1만6000원>



고르는 방법도 담았다.

<비서공·1만4900원>

▲만년 풀씨를 1% 명문대생으로 만든 기적의 독서법=일본판 '공부의 신'으로 불리는 도쿄대학교 경제학부 4학년 저자가 삼수 끝에 도쿄대에 입학한 비결을 담았다. 저자의 자신의 경험과 실제 도쿄대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기적의 독서법 5단계'를 소개한다. 책을 읽고 싶지만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자신에게 맞는 책

▲애디 혹은 애슬리=2010년과 2011년, 2012년 연속해 젊은작가상을 수상한 작가 김성중의 세번째 소설집이다. 제63회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상속'을 비롯해 18세 청소년과 60대 남성의 우정을 그린 '해마와 편도체', 중년이 된 운동권 세대를 그린 '정상인', 기묘한 상상력이 슬며시 웃음을 짓게 만드는 '배짱 입술, 무는 이빨' 등 8편의 단편이 실려있다. <창비·1만4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채소밭 차차차=바람그림책 95권. 화창한 날, 채소밭에서 자동차 경주 대회가 열린다. 개구리, 뱀, 토끼, 쥐, 두더지, 거북이가 자신들을 닮은 자동차를 타고 출발선에 서 있다. 깃발이 내려가는 신호와 함께 모두 달리기 시작한다. 책은 아이들이 자동차 경주를 보며 자연스레 동물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생태 환경을 이해할 수 있게 이끌어 준다. <천개의바람·1만2000원>



▲수달을 평화대사로 임명합니다=어린이들이 전쟁 걱정 없이 한반도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동시로 엮었다. 1부에서는 분단이란 무엇이고 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들려주며 2부는 남북한을 마음대로 오르내리며 사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마지막 3부에서는 67년 동안 통일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의 모습을 담았다. <우리교육·1만1000원>



▲앞에만 서면 덜덜덜=개성 넘치는 아이들의 일상을 다채롭게 담은 머스트비 솜사탕 문고 시리즈 열세 번째 이야기로 책읽기를 싫어하고 아이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동화이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층 멋지게 성장하는 주인공 친구의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내 앞의 작은 두려움들을 헤쳐 나가는 씩씩함을 갖게 해준다. <머스트비·1만800원>



친밀하게 다가와 당신을 괴롭히는 소시오패스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마샤 스타우트 지음·이원천 옮김



사람들은 소시오패스·사이코패스를 떠올리면 대부분 '범죄'를 연상한다. 가끔씩 뉴스에 등장하는 혐의적인 행각의 범 죄자는 물론이고 영화 '다크나이트'의 조커나, 소설 '양들의 침묵'의 한니발 렉터처럼 영화와 소설 등에 묘사된 그들은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범죄를 저지르는 살인마로 다뤄진다.

교묘하고 은밀하며, 절절하게 동정을 구하며, 사회에 빌붙어 기생하고, 심지어 매력적 이기까지 해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그는 무려 25명 중 1명

에 달하는 소시오패스가 곳곳에 숨어 있다고 주장한다. '정상이라는 미션' 등을 쓴 마샤 스타우트의 신작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는 소시오패스와 양심의 문제를 심도있게 파진 책이다.

저자에 따르면 소시오패스는 범의 테두리 안에서 '친밀하게 다가와 참혹하게 당신을 괴롭히는' 이웃, 가족, 혹은 동료일

수 있다. 저자는 트라우마 생존자들을 상담하면서 학문적·의학적으로 정의조차 하기 어려운 모호하고 위험한 존재인 소시오패스에게 심리적·정신적 폭행을 당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가 정의하는 소시오패스는 '양심이 전혀 없는' 인간이다. 보통 사람들은 모두 '감정적인 애착에서 오는 의무감'인 양심을 가지고 있다. 책은 다섯명의 제각각 다른 소시오패스 사례를 통해 소시오패스에 대해 설명하고 인간의 양심 문제를 심도있게 다룬다.

책에는 작고 미세한 갈등을 격렬한 말다툼으로 키우는 재능을 가진 소시오패스로 평생 돈을 벌며 본 적이 없으며 모든 갈등의 시초가 되고 모든 이웃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남자 킬리, 동료의 미모·지상·

성공 등 빼앗을 수 없는 것을 빼앗고 싶어 하는 탐욕적인 도린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또 가족에게 전혀 관심 없으면서 부인에게 기생해 그저 자신이 원하는 정도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양심이 없으므로 당연히 죄책감도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없는 루크의 아내 시드니, 부인과 딸을 자신의 삶의 트로피처럼 여겨 자랑할 거리가 없으면 완벽하게 무시하는 아버지를 둔 딸 한나 등 소시오패스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겪는 트라우마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들려준다.

소시오패스와 양심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저자는 소시오패스 문제를 세심하게 다룸과 동시에 도덕, 철학, 종교,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 양심의 기원과 발전, 효과, 필요 이유 등을 짚어준다. 저자는 양심 없는 그들로부터 양심 있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 <세계적·1만6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